

# 자영업자 “달으러서 달았잖나” 눈물

### “집합금지 피해도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 “피눈물 머금고 영업 중단...암담한 상황”

### 정의당 화답...“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자영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해 받은 지난 경제적 피해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와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음식점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17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심상정·배준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과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최선을 다해 따랐다”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서 전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회장은 “국가가 문을 달으라고 해서 성실하게 피눈물을 머금고 잘 따랐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건 횡포나 다름없다”며 울먹였다.

김기흥 전국PC카페대책위원회장 역시 “개인적으로 집합금지로 인해 파산까지 가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허리를 졸라매라는 건 목을 조르는 것 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이창호 음식점협회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업계 실태 조사 결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평균 72% 하락했다”며 “일률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구체적인 다양한 손실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제도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제 제도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정세균 총리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서선욱기자

## 광양서 트레일러·승합차 충돌...9명 중경상

9일 오전 11시 39분께 전남 광양시 황길동 컨테이너 도로 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트레일러와 좌회전 중인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49)씨와 동승자 B(50)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7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이들은 함만부두 노동자들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길에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량이 점멸 신호등인 삼거리에서 각각 좌회전과 직진을 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여수 거문도 해상서 LPG운반선·어선 충돌...1명 부상

전남 여수 해상에서 대형 선박과 어선이 충돌해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24km 해상에서 3313t급 LPG운반선 A호와 130t급 저인망 어선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에는 16명, B호에는 11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으며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등이 출동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 B호의 선원 1명이 사고 이후 어깨와 팔목 통증을 호소했지만 크게 다치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해 A호의 좌현 선수부 일부가 파손·파괴돼 뗏(앵커)이 유실됐지만 침수, 해양 오염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도난중고차 수사중 '마약상습투약' 태국인 6명 검거

범원이 범정에 선 3명의 상습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험을 신고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0시 15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1kg가량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무면허로 약 40k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7%)한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대해서도 지난 4일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B씨는 음주운전 또는 위험 운전 치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B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복학 판사도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2시께 전남 나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로 1kg가량 탐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C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범죄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영암 월출산서 쓰러진 60대 등산객 위독

9일 오전 10시12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구급 헬기를 투입,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송 당시 호흡·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마약 밀수·유통' 50대 총책 검거...조직원 40여명 구속

### 2만3000명 이상 투약가능 양 발견

### 수백kg 이상 들여왔을듯...일당 추적



국내에서 수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보유하고 유통하고 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0대 A씨 등 일당 40여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마약 유통 총책인 A씨를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

다.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700g 분량으로 조사됐다. 이는 2만 3000명 이상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거래금액만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이 외에도 국내에 수백kg 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소매판매했고 일부는 순도를 높이기 위해 2차 가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일당을 추적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잡힌 A씨는 국내에 전국 유통망을 두고 엄청난 물량을 거래하는 거물로 손꼽힌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 광주지역 학생들 절반 이상, “여행가고파...봉사활동 싫어”

광주 지역 학생 10명 중 과반 이상이 희망하는 여가 또는 체험활동으로 '여행'을 꼽았다.

9일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만3672명을 대상으로 광주교육종합실태 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여가와 체험활동으로 65.5%가 여행을 꼽았다.

성별로는 여학생 응답자의 74%, 남학생 응답자의 57.1%가 여행을 선택했다.

이어 스포츠 참여 14.9%, 환경 관련 활동 7%로 조사됐다. 봉사활동은 1.2%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스포츠 참여는 남학생의 선호도(25.5%)가 높았다. 낮은 선호도를 보인 봉사활동 참여는 남학생 1%, 여학생 1.5%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가와 체험활동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응답자의 경우 66.8%가 여행, 15.7%가 스포츠 참여를 희망했다. 최윤희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